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 2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1945-19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

- _ 구술 녹취문
- _ 구술자 연보
- _ 참고 자료 목록
- _ 참고 자료 원문
- _ 구술자 원문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들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발 행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주 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전 화 02-410-9123
팩 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 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이경민, 황사라
진 행 이동은
녹취초교 육영혜, 정은정
진행보조·번역 나보리
디자인 한스그래픽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0년 12월

© 2010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사진문화연구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from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2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1945-19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

7 구술면담 개요 및 일정
8 일러두기

－ 구술 녹취문

- 11 제 I 차 :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 사진계의 형성과 전개
- 59 제 II 차 : 1950년대 후반 신선희의 조직과 활동
- 87 제 III 차 : 1950-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비평담론

－ 관련 자료 소개

- 122 1. 구술자 연보
이명동
정범태
- 124 2. 참고 자료 목록
신선희, 싸롱아루스 관련 자료 목록
인간가족전 관련 자료 목록
- 128 3. 참고 자료 원문
신선희, 싸롱아루스 관련 주요 원문
인간가족전 관련 주요 원문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관련 주요 원문
- 142 4. 구술자 원문 자료
이명동, 살롱사진의 전근대성
정범태, 역사의 목격자_한 장의 사진을 말한다 1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2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자료집 제2호는 이명동 선생과 정범태 선생의 육성을 통해 1945년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한국 사진계의 전반적 동향을 살폈다. 8·15해방, 한국전쟁, 4·19혁명 그리고 5·16쿠데타와 같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 한국 사진계는 어떻게 처신하고, 무엇을 모색했는지 두 원로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정리했다. 이명동 선생과 정범태 선생은 해방과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진계의 이념대립, 전후 리얼리즘 사진의 전개양상과 사진단체들의 허와 실 그리고 1964년 국전의 사진분과 창설에 이르는 과정을 어제의 기억처럼 또렷이 회고했다. 두 분은 빈곤하고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사진의 사회적, 예술적 지위향상을 암중모색했던 한국 사진계의 이면과 그들의 개인사를 아낌없이 증언하고 고백했다.

이번 구술프로젝트는 원래 2회에 걸친 좌담회로 계획되었었다. 이명동, 정범태 선생을 함께 모시고 한국 사진계의 역사적 사안들을 질문하면 개별 인터뷰보다 더 객관적이며 덜 주관적인 진술을 얻을 수 있고, 구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억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첫 번째 좌담회는 두 분을 함께 모시고 2009년 11월,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이뤄졌고, 내용은 해방 후 몇몇 좌익 사진계 인사들의 활동과 부산 피난시절의 사진계 동향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좌담회는 2009년 12월로 예정되었지만, 이명동 선생의 예기치 않은 건강문제 때문에 정범태 선생의 단독 구술로 진행되었다. 선생의 사진 입문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사진 이력, 전후 해외 공모전의 입상 경력과 신선회, 싸롱아루스의 창설과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째 인터뷰의 주를 이뤘다. 세 번째 인터뷰는 이명동 선생 단독으로 2010년 6월에 행해졌으며, 50년대 후반 이후의 사진평론의 흐름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에 관한 일화, 국전의 사진부 창설 등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명동, 정범태 선생, 두 분 모두는 언제나 생생한 기억으로 한국 사진계의 지난 과거와 자신들의 사진적 이력을 진술하셨다. 두 분은 한국사진사 정립을 위한 구술채록에 피곤을 마다 안하시고 늘 차분하고 조리 정연한 어조로 임하셨다. 발간의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자료집을 위해 귀한 사진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한영수문화재단에 감사함을 표한다.

2010년 12월